

곡성 체리, 미국산에 도전장



재배면적 2022년 60ha로 확대
신선도와 안전성으로 승부
곡성군·농협·농업인 한마음
경쟁력 키우기 머리 맞대

곡성 체리가 미국산 체리에 도전장을 냈다. 29일 곡성군에 따르면 곡성의 신성장 작물로 체리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재배면적이 30ha로 늘어나는 등 곡성이 국산 체리 주산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2년까지 60ha까지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2025년 생산량 180t과 생산액 36억원 달성을 1차 목표로 하고 있다. 아직은 도입 단계로 생산·유통·6차 산업화 등 갈 길이 멀지만 새로운 지역 소득과 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농업인이 한마음으로 품질 좋은 체리를 선보이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나섰다.



곡성군이 신성장 작물로 체리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재배면적을 60ha까지 확대하는 것이 1차 목표다. <곡성군 제공>

곡성군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경쟁력 있는 생산기반으로 매년 10차례 이상 교육과 현장견학을 추진 중이다. 또 선별 기준, 제품 포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곡성 농협APC와 협업을 통해 공선체계를 도입하기도 했다. 신선도와 안전성 면에서 국산 체리의 시장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게 곡성군과 재배 농가들의 판단이다. 체리의 경우 유통기한이 짧은 편인데 미국산의 경우 우리나라로 건너오는데만 최소 3~4일이 소요된다. 일본에서도 소비량은 줄지 않는데 반해 미국산 체리 수입량은 감소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우리 국민의 체리 소비가 확대될 것이라는 데에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국산 체리가 미국산을 얼마나 대체할 지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안전성과 좋은 품질을 갖춘다면 국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대형 마트와 온라인마켓을 중심으로 미국산 체리의 판매가 확대되면서 미국산 체리 수입량은 지난해 기준 1만5800여t으로, 2005년에 비해 16배 증가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구례군, 지리산·백운산 계곡 행락질서 잡는다

불법 시설물·무허가 영업 등
계곡 22곳 8월까지 집중단속



구례 지리산 문수굴 계곡의 한 음식점이 계곡에 차광막과 평상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영업하고 있다.

구례군이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지리산·백운산 계곡의 불법 시설물·무허가 영업 행위 등 행락질서 확립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구례군은 다음달 11일부터 8월23일까지 44일간 행락질서 확립 집중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지리산 계곡인 구례군 토지면 문수굴과 피아골, 백운산 계곡인 간전면 용지동·산동면 수락폭포 등 주요 행락지 22개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행락지별로 30명을 투입 책임 담당제를 실시하고 휴일에도 200여명의 공무원을 배치, 계도와 단속에 나선다. 특히 불법시설물, 바가지요금, 무허가영업 등을 특별 단속하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 미이행 여부, 하천·도로의 무단 점용,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도 함께 계획이다. 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섬진강 등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인명 피해 없는 여름휴가 보내기를 추진하며 코로나19 예방 관리도 같이 실시한다. 구례군 관계자는 "행락지별로 화장실 등 공공이 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에 나서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만큼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휴가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읍 A모(71)씨는 "여름철만 되면 되풀이 되는 바가지 요금, 무허가 영업행위, 불법시설물 설치 등으로 구례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고 있다"며 "행정기관의 보다 철저한 지도단속과 함께 구례의 내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보는 영업행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B모(64)씨는 "공무원들 눈에는 불법시설물 등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주민이나 민원인들의 신고만 처리하는 수동적 자세보다 적극적인 현장 위주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B씨는 또 "경기도가 작년부터 유명 관광지에 대한 불법 시설물 강제 철거 등으로 도민들로부터 크게 호평을 받고 있다"며 "전남도와 구례군도 방법을 달리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고흥관광 하면 이곳' ...대표 관광지 개발 나서

인프라 갖춘 관광 허브로 육성
군, 7월21일까지 아이디어 공모

고흥군이 대규모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대표 관광지를 개발한다. 고흥군은 연간 관광객 100만명 이상을 유치하고 특정 연령층에 집중되지 않는 대중성을 갖춘 대표 관광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아이디어 공모에 나서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 고유의 특색있는 자원과 연계할 수 있고 일정 수준의 관광 인프라와 매력을 갖춘 곳을 지역 관광거점으로 개발해 관광 허브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고흥군은 전문가 자문과 전 국민 대상 아이디어 공모를 거쳐 8월까지 대표 관광지 개발 후보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광 분야 교수와 연구원, 민간 컨설팅

업체, 관광업 종사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 매력적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관광지 개발 방향 등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전 국민 대상 아이디어 공모는 7월21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고흥을 대표하고 대규모 관광객 유인이 가능한 핵심 관광지나 최신 관광 트렌드에 부합하면서 지속발전 가능한 관광지,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연계할 수 있는 관광지 조성을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최우수작 200만원 등 모두 6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고흥군 관계자는 "소록도·우주센터 등 명소가 있고 최근에는 팔영산 편백숲과 축섬, 연흥도 등이 주목받고 있지만 '고흥관광 하면 이곳'이라고 대표할 만한 관광브랜드가 없는 현실"이라며 "대표 관광지를 개발해 관광객과 주민이 만족하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국제항만협회 '지속가능성장 어워드'
여수·광양항, 국내 항만 중 유일 입상

여수·광양항이 국내 항만 중 유일하게 '2020년 IAPH 지속가능성장 어워드'에 입상했다. 29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여수·광양항이 최근 국제항만협회(IAPH)가 선정한 '2020년 IAPH 지속가능성장 어워드'에 입상했다. 'IAPH 지속가능성장 어워드'는 총 5개 분야에 대해 공정한 심사(온라인 30%, 심사위원평가 70%) 통해 매년 전 세계 항만 중 18개 항만에 대해 입상 및 수상을 선정한다. 5개 분야는 ▲항만 인프라 ▲기후변화 ▲지역사회 공헌 및 항만도시 협력 ▲안전 및 보안 ▲항만 거버넌스 등이다. 여수·광양항은 '지역사회공헌 및 항만도시 협력' 부문에서 국내 항만 중에서는 유일하게 입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올해는 싱가포르항만공사 등 총 120개 글로벌 항만이 신청해 6.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여수광양항만공사 측은 설명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GS칼텍스, 여수사랑상품권 2억3000만원 구매



지역경제 활성화 동참

GS칼텍스 여수공장이 여수사랑상품권 2억3000만원 어치를 구입해 전 임직원에게 나눠준다. 29일 여수시에 따르면 GS칼텍스 김형국 사장과 김재오 노조위원장이 지난 25일 시장실을 찾아 2억3000만 원 상당의 여수사랑상품권 구매증서를 전달했다. (사진) 상품권은 6월 말에 구입해 GS칼텍스 여수공장에 재직 중인 1900여 임직원 전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김재오 노조위원장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코로

나19 청정지역인 여수에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휴가를 보내자는 취지로 노사가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형국 사장은 "여수사랑상품권 구매는 여수사랑 실천의 특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기회가 되면 여수사랑상품권을 더 구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GS칼텍스의 여수사랑상품권 대량 구매는 지난 3월 신철 중인 공장의 무재해 400만 인시 달성 기념으로 1억5000만 원을 구입해 신철 현장 근로자 5000여 명에 전달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 062-412-2800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수목장 * 자연장

광주에서 30~40분 소요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수목장 묘지이장 문의

방치된 묘지 70%(추정)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